

# 배우 김의성 “오월 광장 메운 ‘시민군’ 역할 맡아보고 싶어”



1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악역 국방부 장관(오국상) 역을 맡은 배우 김의성.

“영화 '서울의 봄'에 다음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분명 광주에서 벌어진 후일담을 다룬 것일 테죠. 이제는 할아버지 역할을 맡을 나이가 다 되었지만 만일 내가 조금만 젊었다면... 광장을 가득 메웠던 '광주 시민군' 역할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여태 악역 필요그래피만 쌓아왔는데 그런 숭고한 역할도 맡아볼 수 있다면 영광이겠죠.”

영화 '서울의 봄'에서 국방부 장관(오국상) 역으로 수많은 관객들의 '공분'을 샀던 배우 김의성의 말이다. 그는 16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학술대회 '나-들의 오월, 기록을 만나다'에 패널로 출연했다. 이에 앞서 취재진은 김의성 배우를 만나 영화 '서울의 봄'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생각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영화 속에서 군사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던 권력자 중 한 명이지만 '도망'을 택했던 것과 달리, 현실 속 '김의성'은 다르다. 지난 2020년에는 표창원, 심용환과 함께 '5·18 특집다큐-5월행'에 출연해 광주 시민들을 만났다. 또 5·18 40주년에는 개인 sns에 기도하는 손 모양의 사진을, 전두환이 자연사한 날에는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업로드해 이목을 끌었다.

그에게 “실제 1980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냐”고 물었다. 김의성은 “작품을 촬영하는 내내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고민해 보곤 했었다”며 “나는 겁 많고 평범한 사람이기에 아마도 작품 속 모습과 비슷하게 행동했을지 모른다. 약에 적극 가담하지 않더라도 도망치거나 두려워했을 것 같다”는 소시민적 대답이 돌아왔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나-들의 오월, 기록을...' 학술대회 참여

‘서울의 봄’ 국방부장관 역 “실제 장관이었다면 두려웠을 것”

“다음 이야기 있다면 ‘광주 이야기’... 끊임없는 역사 성찰 필요”



영화 '서울의 봄'의 한 장면.

그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찰’하는 것이다”며 “자기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인간은 권력의 안온함에 넘어가기 십상이다”고 덧붙였다.

어떠한 과장 없이 “두려웠을 것 같다”는 대답

이 돌아왔음에도 일순 '서울의 봄' 스펀오프가 나온다면 신군부에 저항하는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상상된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5·18 당시 그는 중학교 3학년이었다고 한다. 당시 신문을 통해 “폭동이 진압되고 평화로운 광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후 이것이 왜곡된 사실이라는 것을 광주 사진·영상물을 통해 깨달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결정했다고 한다. 그가 깨달은 진실은 ‘광주의 봄’은 전혀 없었고 도시는 비극, 참극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다.

김의성은 “영화는 영화”라는 마음으로 실제 자신과 극중 ‘오국상’의 페르소나를 분리해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전두환 역을 맡은 황정민 배우에게 “너 대머리 가발 분장 잘 됐다”거나 “탈모에 뭐가 좋냐”는 등 위트 있는 이야기로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임했다는 것. 이처럼 연기하는 내내 5월과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사감을 배제하고 배역에만 몰입한 점은 영화 '서울의 봄'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유 중 하나로 다가왔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영화를 현실과 분리하려 생각하더라도, 엔딩 크레딧에서 악인들의 ‘성공담’을 접할 때는 가슴이 울컥하기도 했다”며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 세력이 성공 가도

를 걷게 된 비화를 볼 땐 영화배우가 아니라 ‘관객’ 입장에서 크게 분노했다”고 언급했다.

가벼운 질문도 건넰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광주 시민(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없나”.

‘서울의 봄’에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외계+인’ 2부의 외계인 죄수 ‘자장’ 역, ‘부산행’ 중 ‘용석’ 역과 ‘미스터션샤인’의 이완익 등 그의 커리어는 ‘악인전’을 방불케 한다. 극 중 메소드 연기를 보여준 탓에 분노까지 느끼는 관객마저 다수인 터라 아직 해원 되지 못한 ‘광주의 한’을 조금이나마 녹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의성은 오직 ‘국방부 장관’으로서 답변하자면 “그날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할 뿐”이라며 광주의 설움에 공감했다. 이어 “팩션인 영화 '서울의 봄'이 실제적 진실에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떠나, 광주의 큰 비극사를 막을 수 있던 ‘국방부 장관’으로서 광주 시민들께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실제 1980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들은 사과는 아니었음에도 그의 말은 1980년 5월 당시, 쿠데타 방조자에게 사과를 받는 추체현(追體顯)의 감격을 남겼다. 영화를 통해 현재화된 44년 전 ‘5월’. 악역 배우가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카타르시스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별로 다를 것입니다. 5·18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보면 ‘희생’과 ‘고통’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숭고한 ‘영광’의 역사로 먼저 기억됐으면 합니다. 미래에는 5·18이 ‘역사의 높은 봉우리’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사진·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 창작공간 입주 작가 찾습니다

광주문학관, 6월4일~8월31일 최대 8명

광주문학관은 “잠신하고 역량있는 제2기 창작공간 이용 문학작가”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문학관 창작공간은 문학 집필에 집중하기 위한 작업실로, 문학관 2, 3층에 마련됐다. 이용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제2기는 6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최대 8명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춘문예나 문학 전문지 등을 통해 등단했거나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기성작가 혹은 아직 등단하지 않았지만 작품 발표 혹은 출판계획이 있는 예비 작가다. 장르는 모든 문학이다.

이용 희망자는 20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jih327@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공간이용은 무료이며, 교통비·식비·체제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유선 인터넷은 무료 제공되고, 노트북은 개인 용을 활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아 광주시 문화도시조성과장은 “광주문학관은 시민과 작가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문화 발전의 요람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전화결제 서비스 가능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23일까지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화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전화주문은 이용자가 직접 전화해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해 집으로 직접 배송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모집 대상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또는 가맹점 등록에 적합한 분야별(문화·체육·관광) 업체 중 문화누리카드 구매 가능한 상품의 전화결제(수기결제)와 배송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선정된 전화주문 서비스 상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 홍보된다.

재단은 거동이 어렵거나 상품 정보 부족으로 문화누리카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 전화주문 상품안내 책자를 제작해 광주시 전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사회 복지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에 수록될 가맹점은 25곳 내외를 선정하고, 책자에 수록되지 않은 가맹점도 광주문화누리카드 블로그 및 SNS에 홍보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점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gjcfmunhwanur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관객들 무대에서 가두행진...팍 쥘 주먹 치켜들며 ‘독재 타도’

ACC 관객 참여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리뷰

“너무도 사실적인 공연...역사 속 광주는 분명 승리했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스크린에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전남매일 기자들의 사적 사유가 비쳐졌다. 기자 역할을 맡은 배우가 중앙으로 나와 신군부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절필’을 선언한다.

바야흐로 다시 5월이다. 44년을 거스른 ‘선배 기자’의 의분을 보고 있으니 극이라도 마음이 편치 않다. 신군부가 언론을 장악해 침묵할 수밖에 없던 비참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다만 역사 속에서 광주는 분명 ‘승리’했다. 윤상원 열사도 생전 “오늘의 우리는 패배할 것이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라 말했다.

지난 15일 저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펼쳐진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관객 참여극 ‘이머시브 씨어터(Immersive Theater)’를 표방하는 생동감 넘치는 작품이었다. 관객들은 손과 발로 바닥을 두드리면서 5월 참극을 ‘온몸’으로 표현했고, 팍 쥘 주먹을 치켜들며 ‘독재 타도’를 연호했다.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극공작소마방진 등이 함께 제작했으며 고선웅(현 경기도립

극단 예술감독)이 작·연출을 맡았다. 공연 장소로 예술극장 극장1이 선택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오픈형 무대와 가변형 객석은 공연장의 경계를 무효시켰다. 여는 공연과 달리 S석 1번, A석 2번 등 지정 좌석도 없었다. 보조역인 조선대 재학생들의 유도에 따라 관객들은 ‘관람’과 ‘참여’를 넘나들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라, 실제 계엄군 자료사진 등은 현실감을 더했다. 대형 계엄군 모형과 군봉 등이 소품으로 등장해 그날 광주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물론 5월극이라 해서 침묵한 분위기로만 전개된 것은 아니다. 빗방울 문양의 조명이 내리 쬐는 ‘비 내리는 연설’ 장면에서는 모두 일어나 손을 잡고 강강수월레를 출 만큼 극적이었다. 기자도 관객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대중 세상을 환영하는 몸짓에 동참했다. 그 시절 히트곡 ‘빗속의 여인’이나 ‘남행열차’가 지역 풍물패의 신명나는 가락과 함께 울려 퍼지자 중·장년 관객들은 어깨를 들썩였다.

공연 말미에서는 일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떠올랐다. 그는 ‘있음’과 ‘없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을 강렬하게 살아가는 ‘현존재(Da-sein)’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44년



만세를 외치며 계엄 철폐와 민주화를 부르짖는 시민군 역할을 맡은 배우들. <ACC 제공>

전 분명 ‘나는 광주에 없었다’. 그러나 5·18의 의미를 반추하는 2시간 여 참여극 끝에 오늘의 관객들은 ‘그날’, 광주에 잠시나마 현존재로서 ‘실존’할 수 있었다.

박진규 씨(65·소태동)는 “너무도 사실적인 공연을 보다 보니 5·18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과 맞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며 “옆에 있던 전우는 뒤에서부터 총알이 눈을

관통할 정도로 계엄군들은 조준사격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이 몰래 이번 공연을 예매했는데 공연장에 오기 전까지는 5·18 트라우마가 떠오를까 봐 걱정이 앞섰다”며 “그날 광주의 함성을 재현해 보니 마음의 한이 조금이나마 씻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 나눔·연대 광주정신 ‘짚 그릇’에 담다

비움박물관, 21일까지 ‘짚풀 같은 사람들...’ 전

오랫동안 농경문화를 이루어왔던 우리 민족에게 짚은 다양한 의미를 지녔다. 가을 추수철 알곡을 털어내고 남은 짚은 다양한 용도로 쓰였다. 축산 농가에서는 겨울철 사료로, 일반 농가에서는 화목재료로, 공방에서는 멋과 기쁨이 담긴 공예품 등으로 활용됐다.

특히 농한기 때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와 중년의 아버지가 사랑방에 모여 짚을 꼬아 생활 용품을 만들었다. 짚을 엮어 만든 소쿠리나 바구니 등은 필수품이었다. 사실 그러한 모든 ‘짚 그릇’에는 우리 민족 고유 정신인 연대와 나눔이 깃들여 있었다.

5·18 44주기를 맞아 나눔과 연대를 ‘짚 그릇’으

로 살펴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오는 21일까지 ‘짚풀 같은 사람들, 삶의 무늬와 영혼의 빛’을 연다.

이번 전시 작품은 박물관 소장품과 지난해 북구 건축동 주민자치회에서 기증받은 짚풀 공예품들로 구성돼 있다.

박물관은 알곡을 내어주고 마지막 남은 빈껍데기까지 오롯이 다른 용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던 짚풀의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 80년 5월 민주화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분명히 떨쳐 일어났던 무명의 민초들은 ‘짚풀’과도 같은 이들이었다.



비움박물관에서 21일까지 열리는 ‘짚풀 같은 사람들, 삶의 무늬와 영혼의 빛’ 전. <비움박물관 제공>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은 아련한 향수와 함께 희생과 연대의 의미를 살뜰히 전해준다. 곡식을 담아두거나 사소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짚 용품들은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영화 관장은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짚 그릇’은 우리들

의 미풍양속인 나눔과 연대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물품이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짚 그릇’에 담긴 고귀한 뜻을 광주정신과 연계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 기간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인 ‘치유의 숲’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